

의인의 승리

잠언 24:13-20, 요한계시록 17:12-14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났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가 62가지 진도자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중에 잠언서를 보고 있다. 오늘은 24장에 왔는데, 잠언 24장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요즘 학교에서나 언론, TV방송을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편박을 받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을 도와 줘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세계에서 가장 편박 받는 종교는 이슬람교가 아니다. 사실은 기독교이다. 약 50개의 나라에서 2억 1천 5백만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기독교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이슬람 국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에서도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힌두교인들도 힌두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가? 바로 북한이다. 16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너무 비참한 편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이 약해지고 믿는 사람이 없어졌는가? 아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계속해서 개종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개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우리 살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탈북한 동포를 도와주고 살려주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엄청난 편박 속에서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회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전해준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다. 사실 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데, 200만 명의 난민들이 갑자기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 난민들 대부분이 회교도들이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유럽은 회교국가가 되겠다. 그 교도복을 마려내는 것이구나. 지금은 난민이지만 이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목사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회교도들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화될 겁니다." 선교사님의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유럽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유럽교회가 거의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교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정말 이복을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분들이 와서 폼파이를 하고 노동일을 하며 전부 모아서 지금 한국에 50군데, 100군데에 계속해서 지교회회를 넓혀가고 있다. 생을 바쳐 버린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전부 회교도화 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에도 와있다. 인간의 정으로는 반드시 도와주고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도 유럽과 같은 걱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저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위기와 소망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대마다 오직 복음을 말했던 이들은 늘 편박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가? 권력이 교회를 편박한 일이 얼마나 세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었는가? 그런데 역사가 증언하기를 그 편박하던 권력은 모두 무너졌다. 강대국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은 승리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 세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이다. 성경은 앞으로도 더 큰 편박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복음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할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또 역사가 증거 하는 것처럼 복음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는 복음의 편에 서 있거나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이다.

1. 악한 자들의 세상

잠언 24장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실상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잠언 24장에 나온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잠언24:1을 보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흥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램넛들이 속는 것이다. 잠24:2을 보면 그 악한 자들은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입술로는 재앙을 말한다고 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 (2) 그래서 24장 8절에 보면 '이들은 악행하기를 피하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악인을 표현하고 있다.
- (3) 세 번째 표현은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상태를 보면 미련하고, 거만함에 빠져있다고 했다. 잠24:9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했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마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잠언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여호와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생명이야. 그 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 (4)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결박적으로 그 미련한 자가 꾸이는 것은 전부 죄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것이 사단이었고, 사단이 자신이 하던 일을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다. 꼭 이렇게 살고 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재물이라고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
- (5)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24:20에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다고 말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말한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6)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악한 자들은 세상 신, 요14:30에 표현한 세상 임금에게 정약 당해 있기 때문이다. 고후4:4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장악해버렸다고 말한다.

- ① 유진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요8:44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정체성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너희 아버 마귀"에게 정약당했다.
- ② 그러니까 열2:2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 ③ 막5:1-10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완전히 원수에게 사로잡혀버렸다고 말한다.
- ④ 그래서 행8:4-8 말씀대로 육신의 상태도 무너지게, 병들어버리게 된 것이다.
- ⑤ 결국은 주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눅16:19-31의 말씀이다. 마25:41에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⑥ 그런데다가 고전10:20의 말씀대로 계속 귀신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 멸망상태가 후손에게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 신약이 구약보다 더 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다는 것이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을 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라는 것이다. 행악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막하는 잠언 24장은 결국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가? 정선희 집사님이 이번 GATE EXPO에서 상담을 책임지고 운영 했다. 오늘 아침에 1부 예배를 오셨길래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 되었는지 여러 이야기를 했다.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잠언 24장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 램넛들이 내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저들을 치유해주는 서명으로 설 자가 바로 복음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이다.

2. 의인의 승리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이다.

- (1) 의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모데서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으나 자에게는 편박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의인이 요5:19에서 밝혀졌지만 의인은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요15:19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일 3:13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가 악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이 임금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인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편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마 24:9을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사실은 이 기도제목은 가지고 기도하다가 지금 이 교회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 내 복음이 희미해서 당신의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확실한 복음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깨닫게 되어서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교우들이 떠나가고 왜 교회를 배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 내게 위로를 주시더라. "세상이 너를 미워했느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 없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찬양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 터를 주셨고 예배당을 짓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믿는다.
- (2)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인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잠24:16에 말씀하셨다. "대저 의인은 7년 넘어질 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칠천팔기라는 것이다. 예전에 홍수완씨가 4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다. KO당한 것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5번째 쳐서 KO 승 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보지 않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그렇게 된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롬8:37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램넛들은 너무 좁은 마음으로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요 16:33을 잘 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한다. 그 믿음 가진 여러분이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이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28:20에서 약속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 (3)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성도인가? 우리가 무엇을 광장히 잘했는가? 의를 행했는가? 착한 일을 했는가? 올바른 일을 했는가? 아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접하던 순간에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기록한 성도가 된 것이다. 기록한 성(聖), 무리 도(徒)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 사람, 바른 것을 행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 기록한 영, 의의 영, 진리의 영,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행체를 인정하기를 축복한다. 요일3:8에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영원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일5:4-5 "무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나의 위력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의인인 믿음에 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 (4) 누가 승리한다는 말인가? 의인이 승리한다. 그렇다면 내가 의인이 맞는지 확인하면 될 것 아닌가.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롬2:20에 '율법의 행위로 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롬3:21-22을 읽어보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 것이다.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가 바로 의인데 그 분을 받아들이면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롬1:17에 말씀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복음을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제된 62가지 진도자의 삶을 시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또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정제되어 가는 것이다. 완성은 언제 되는가 이미 완성 되었지만 우리 구원의 진짜 최종완성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완성되었거나 또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완성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범죠했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님, 왜 우리가 매주 사죄를 선포하시나요?"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이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도 멸망 받을 수 있다. 자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장로교회는 아니다. 한 번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워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 중 마지막이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이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의인이요, 승리하는 신분인 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욕구제 'God damn'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말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No!! No!!" 한다. 내가 비록 실수했고, 넘어졌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랬다

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지 않나?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때로는 매를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치유하신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고도 분명하다.

3. 의인의 승리 방법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잠깐 24장을 다시 보면, 의인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1절에 말하기를 “의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10절에는 “환난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라고 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낙담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다시 견고히 설수 있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다. 반복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2)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말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나뭇을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초대교회는 핍박자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불신자상태에서 타락하고 있을 뻔임을 오히려 깨달은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발악하고 있구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저들을 진전내워야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찬양을 받고 소망과 사랑을 다하게 된 것이다.

(3)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여진다. 정말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보시기를 축복한다. 나중에 거기서 끊어 나온다. 그것이 진짜 끊어 나온다. 요셉이 딱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24장 14절에 보니까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라고 했다.’

(4) 그러면서 잠24:11-12을 보니까,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라.”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살릴 입장이지,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일 아예 자라라도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너,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구나. 성경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이고 소망이다. 그것이 62가지 삶의 방법이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것이다. ‘사방으로 끌려가는 자를 내가 건져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주라.’고 말 씀하였다. 항상 내 삶이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으면 승리하는 자가 된다.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반에 회방에 가서 만난 분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죠.’ 하더라. 그렇다면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선악과라는 것.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돌보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첫 번째 천사가 그 한계를 넘어서다가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라.’ 하고 주신 것이 창2:17이다. 이것이 최초의 성경이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것이 창3:1-6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마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마귀를 따라간 것이다.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의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버렸다. 계12:9의 말씀이다. 우리가 승리한 후에 할 것이 단 한가지 밖에 없다. 그 분에게 이 복음을 꼭 설명했더니 ‘제가 수십 년 믿어서 안 수습사인데,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 많다. ‘우리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회방에는 물건을 사러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서 위태로운, 절망에 빠진 아이를 보거든 이 말씀을 전달해줘라. 교회 비판하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이 복음을 이야기 해주면 생명이 살아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를 참 신이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든 그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말해주면 살아난데 그 말을 해주면 되지 않는가.’ 성경 읽는 방법도 이야기 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모른다. ‘성경 66장을 꼭 한 알맹이를 드린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가요.’ ‘나도 그것을 못들었었다. 어느날 이것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일을 여기서 해라.’ 했더니 ‘예.’ 하더라.

(5) 승리한 후에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17, 18절이다. 원수가 넘어질 때 그것을 조롱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 승리했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다고 뽐내서는 안된다. 예전에 해외에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을 책망하고 교우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이 나보다 잘하면 무엇 때문에 나를 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는가? 모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순순하게 그 말을 그 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드리고 오면 되는 것이다. 그 분이 승리할 것이지 실패할 것인가는 그 분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절대로 증거 하다가 교만해지지 말고,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라는 것이다. 증거 하는 본인도 그전에 그랬을 것이기 때문이다.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교만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되는구나.’ 하는 날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참사랑가족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이다. 혼자서는 거울보고 해도 된다. (웃음) ‘하나님 내가 어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지 않은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 가지 승리를 준비 하라.

(1) 첫 번째 승리는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승리를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서밋은 대통령을 보고 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대통령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우리 개인이 ‘참사랑교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내가 되었다. 30년을 참사랑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말씀 붙잡는 태세가 내가 서밋이 돼야겠다.’ 우리 참사랑 캠프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오라. ‘우리교회에서 내가 심일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될 것이다.’ 그 분야의 서밋이 되는 것이다. 1억 벌어서 천만 원 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1억을 벌어서 9억 9천만 원을 내라는 것이 아니지 않나? 천만 원만 내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고 쳐주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십일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내 신앙의 점검이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는 것이다. 재물이든 나중에 남으면 내도, 아니면 내겠다는 것은 절대로 못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서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떼어 버려야 한다. 가장 먼저 십일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분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나는 그렇다. 메시지에서 계속 4 가지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니까 해도 되겠다 싶더라.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십의 4조, 5조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다? 먼저 십일조 하고, 선교헌금을 십일조, 캠프트헌금을 십일조, 교회건축에 십일조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하는가? 주일헌금, 감사헌금, 헌신예배 헌금해야지, 다 따지고 나니까 ‘이러면 50%, 60%를 해야 하는데, 살수가 있나?’ 양만 계산 해봐도 맞지를 않았다. 그래서 절대 못하다가 첫 번째 총회장을 하는 동안에 ‘저렇게 메신저가 4대 헌금을 십일조 하라고 강요하는데, 한 사람은 회화야 하지 않았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주는 생활비의 70%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모자라지 않더라. 물론 자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1억원 이상 잔여금을 남겨주고 총회장을 끝냈다.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같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라. 적당히 맞추고 하려고 하지 말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사역을 맡아지게 되면 잡지 않을 것이지만 직무를 다하는 그 날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계수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 계수, 회계를 시키며 혼란시키는 것은 나중에 장로가 될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말라고 시키는 것이다. 보라는 것이다. 하다보면 다 보인다. 어떤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회계를 하는구나. 저 분은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로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모르면 가정이 아니고 자기집의 행편을 모르면 가정 주부가 아니다. 그런식으로 나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역자가 어디서 농성을 치고 있는지, 어디서 불이 깜빡이는지,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 알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빠르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고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부를 줄이 것이다. 아예 류복사님이 메시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제 제자 안 나왔거든?’ 우리가 잔부 남아 있는데도 세계복음화 제자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하고, 아픈 기도 하지만 사실일지도 모른다. 진정 우리 참사랑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제자 나오기를 바란다. 전도제자의 삶.

(2) 두 번째는 우리교회가 현장과 지역에서 승리할 것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아예 태영이부 선생님 두 분과 전도사님이 사랑교회에 가서 공동육아를 시범을 보였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준비하면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복음을 다 듣지 않았는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다 들었는데 ‘그런 것도 캠프드.’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암송도 한다면 한 해 보고 캠프드 한다면 한 해 보고, 지교회도 한 번 열해보고, 아무리 모여도 세신자 오지 않는 다라방을 다라방이 아니다. 세신자가 와서 다라방이다. 세신자 다라방을 해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세력, 흑암문화를 무너뜨릴 전도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말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내용을 준비해두었다가 운운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의 제왕 흐름이 무너지도록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

(3)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아주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사단의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전략을 중얼이 올 때 깨지 썬 것이다. 끝까지 않고 계속 끝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끈덕지게 가야 한다. 누가 승리하는가. 영양이 밀에 깔려있는 땅에서 해질 정도로 끈덕지게 살아있는 사람이 학자가 되고, 입시에 성공한다.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장판이 망가질 정도로 끈덕지게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해낸다. 잠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기 좋아하는 악령의 세력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도울 때도 끝까지 도와준다고 선언하고 도우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계속 말을 더듬는 아버지의 두 아들이 목사 되었다. 그 아버지도 목사가 되었다. 이 분은 그렇게 말을 더듬지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 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분은 생명 걸고 계속 가는 것이다. 결국엔 악령이 손놓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언이 되었지 않은가.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다.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인권차별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이 혈서를 쓰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생명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배경이 바로 3천세대이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이것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두 남자가 찾아와서 ‘결혼했어 니 주례해주십시오.’ 했다. 목사님이 ‘성경은 그것을 금한다. 니를 할 수 없다.’ 하니까 그 목사님을 고발해서 벌금받고 감옥에 갈 뻔했다.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는 일이다. 사단과의 큰 싸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된다. 여러분, 교역자를 우습게 보지 말라. 따로 모여서 쓸데 없는 것 하지 말라. 그러려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라. 왜 목사에게 숨기고 다른 것을 하는가? 그것은 벌써 틀린 일이다. 그러다가 사비와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리 위에 서서, 무언의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그것은 천주교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모자라니까 성모에게, 베드로에게, 온갖 성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이 부족한가? 날마다 가서 해드리겠다. ‘목사님, 주일 설교 듣고 나는 끝났습니다. 담 다 얻었습니다. 내가 의심하던 것이 설교 속에서 모두 답을 얻었습니다.’ 끝났지 않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단과의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앞으로 교권조차도 여기에 타협하는 날이 온다. 신약 본문은 미리 경고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언약의 사랑이다. 집에서 새 신자를 위해서 다라방을 해라. 또 교회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라방을 해보라. 내 집을 개방하고 지교회를 해보라.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에 승리하기를 축복한다. 언약을 굳게 잡으면 된다. 이미 승리한 싸움 앞에 단대하 나이가야 한다. 아가 요 16:33을 이미 말씀드렸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묵상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62가지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잘 보리신 감람산, 마가다라방에서 받은 그 구원의 언약과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될 때까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보지 말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